

# ‘해남형 ESG 농업’ 추진 박차

〈환경·사회·지배구조〉

## 군,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신설 “탄소중립 선도에 역량 집중”

해남군이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한 ‘해남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윤리경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새해 기후변화대응지원단을 신설하고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의 차질없는 지원과 농업분야 ESG 경영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설된 기후변화대응지원단에서는 지난해 해남군으로 유치가 확정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과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통합이전 지원,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남형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우리나라 대표 농군인 해남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분야 미래 전략을 강구하게

된다. 전략의 일환으로 연초부터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탄소 농업 홍보 및 교육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 해남 유치가 확정된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총사업비 407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오는 2025년까지 삼산면 일원 3ha면적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센터를 신축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과 함께 전남도 과수연구소가 통합 이전하게 되며, 해남군에서도 고구마 연구센터와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연구센터 등 연계·후방시설을 구축,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군은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의 거점으로 활용해 민선7기 ESG 윤리경영을 완성하는 교두보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친환경과 사회적책임, 윤리

경영을 아우르며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ESG 경영을 행정의 영역으로 확장해 군정의 전 분야에 걸쳐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면서 “땅끝해남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신년계획을 밝혔다.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남형 ESG 경영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군은 차질없는 설립과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명 군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명경영 철학을 담은 ESG 윤리경영은 민선7기 군정 성과를 완성하는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지원단뿐만 아니라 분야별 해남형 ESG 경영 과제를 발굴하고 군민 공감대 위에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역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신안군, 신제품 ‘신안천사 굴참나무’ 개발 성공

신안군이 지역에서 발견된 굴참나무 변이종을 활용해 3년간의 연구 끝에 신제품 ‘신안천사굴참나무’ 개발에 성공해 눈길을 끈다.

‘신안천사굴참나무’로 명명된 굴참나무는 산림청 산림품종관리센터 신제품등록을 앞두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해 백산리 신안자연휴양림 숲가꾸기 작업을 시행하던 중 햇빛에 은색으로 빛나는 잎을 가진 희귀한 변이종 굴참나무를 발견했다.

은빛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듯한 환상적인 아름다움에 반한 담당자가 이식 후 관리·육성해 현재는 600여그루의 개체 증식에 성공했다.

군은 변이종 굴참나무의 상품화를 위해 광주교육대학교의 신제품확인 용역을 거쳐 품종의 차별성 및 안정화가 확인돼 산림청 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신제품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안천사굴참나무’의 신제품 등록이 완료되면 25년간 품종보호권에 의한 지적재산권이 확보돼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천사굴참나무의 품종 보호권을 활용해 전국 유일의 차별화된 관광자원



신안천사굴참나무 모목.

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무상 분양해 고부가 농가소득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오염되지 않는 신안군의 천혜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산림신제품을 발굴 개발해 미래지향적 산림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10일간 234명’ 목포시, 코로나 확산세 차단 총력전

## 4개 전통시장 선별검사소 운영 자가격리자 공무원 투입 모니터링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목포시는 10일 코로나19 비상 회의를 열어 대응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했다.

전날까지 목포시 코로나19 확진자는 816명으로 이 중 234명이 율해 발생했다.

특히 33명이 발생한 지난 4일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5일 19명, 6일 44명, 7일 34명, 8일 44명, 9일 33명 등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시는 확산세 차단을 위해 율해 들어 하루 평균 2684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

전날에는 정호시장·자유시장·동부시장·종합수산물시장 등 4개 전통시장에서도 선별검사소를 운영했다.

선원 선제 검사를 위해 전남도,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이날부터 3일간 삼학도의 한국섬진흥원 인근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했다.

시는 자가격리자(1211명)에 대해 공무원 350여 명을 투입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는 목욕장협회와는 10일까지, 유희·단란·노래



목포시민들이 10일 동부시장 주차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목포시 제공>

연습장 등과는 오는 14일까지 각각 임시 휴업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아동센터 등은 이날부터 임시 휴원을 한다.

시는 공동주택, 외국인 고용사업장, 실내체육시

설, 사회복지시설, 관광시설, 숙박업소, 문화·종교 시설, 학원·체육시설, 선원, 전통시장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moon@

## 완도군, 첫째 낳으면 산후조리원 이용료 50% 지원

완도군이 올해부터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첫째 아를 출산해 대성병원 내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50%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두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가족’, ‘중증 장애인 산모’, ‘귀농·귀촌인

등에 대해 이용료(2주 기준 154만 원)의 70%를 전남도와 완도군이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군 조례를 개정해 첫째아를 출산할 경우 완도군민이면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2019년에 개원한 전남 공공 산후조리원 3호점

은 10개의 산모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마사지실, 좌욕실, 휴게실, 상담실 등을 갖췄다.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 이용료가 저렴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시설 제공은 물론 병원 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연계돼 있어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한 곳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산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영광군, 경로식당 무료급식 단가 인상

### 거동 불편 어르신 식사 배달 확대

영광군이 결식우려 어르신의 무료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 단가를 5000원으로 인상하고 거동 불편 저소득 어르신의 식사배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거동불편 식사 배달사업으로 구분된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보호를 위해 관내 노인복지관 등 경로식당에서 하루 평균 16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270일 동안 제공한다.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사업이다.

하루 평균 50여 명의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계획으로 군정 노인기정과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무료급식 단가 인상으로 양질의 급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한다.”라며, “위생관리는 물론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급식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지역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공모해 경로식당 5개소, 식사배달 2개소 등 7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 세일글

## “서해바다 해양주권 수호 최선”

### 이종욱 목포해양경찰서장

“원팀(One-team)으로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26대 서장에 취임한 이종욱(54) 총경은 “중저대(中巨大)한 해역을 관할하는 이 자리에 부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단결과 도전정신으로 서해바다의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안전 확보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서장은 “현재 해양경찰의 행동지침으로 제시한 슬로건(Always go & check)처럼 출동과 점검을 생활화해 긴급 상황에 대비 즉응태세를 확립하고 국민의 바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신뢰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위 상호간의 배려, 존중, 소통으로 동료의식을 갖고 각자 본연의 기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서장은 목포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1998년 경찰간부 후보생(46기)으로 해양경찰에 입문해 해양경찰교육원 종합훈련지원단장, 해양경찰청 인천송도청사이전TF 단장, 포항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 혁신행정범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